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추계 학술세미나

태권도 인성교육의 현재와 미래

-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 태권도장 인성교육, 어떻게 적용시킬까?
-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
- 효과적인 태권도 인성교육의 실천방안

2016. 11. 12(토)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대강의실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aekwondo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추계 학술세미나

태권도 인성교육의 현재와 미래

-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 태권도장 인성교육, 어떻게 적용시킬까?
-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
- 효과적인 태권도 인성교육의 실천방안

2016. 11. 12(토)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대강의실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aekwondo

개 회 사



사랑하는 태권도가족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한 듯한데 입동을 지나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태권도 학술교류의 장인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학술세미나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손천택 연구소장님을 비롯한 발제자님과 진행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태권도는 210여 개국 1억여 명이 수련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무예스포츠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태권도의 성장은 심신 수련의 교육적 가치를 등에 업고 스포츠로서 자리잡으면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가 오늘날의 성장 못지않은 제 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태권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권도 인성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오늘의 주제는 21세기 태권도가 지향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기원도 태권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기원에 대한 태권도 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태권도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준비한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12.
국기원 원장 오 현 득

· 세미나 일정

개회식

14:00 ~ 14:10

- 국민의례
- 개회사
- 축사

· 사회 : 이재돈 (국기원 연구소)

1부

학문과 현장의 소통

14:20 ~ 15:00

-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박정준 [인천대학교 교수]

15:00 ~ 15:40

- 태권도장 인성교육, 어떻게 적용시킬까?
강세웅 [KTI 태권십 인성교육 위원장]

· 진행 : 김지혁 (한국태권도학회)

2부

실천적 인성교육

15:50 ~ 16:30

-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
고문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6:30 ~ 17:10

- 효과적인 태권도 인성교육의 실천방안
이종훈 [효(孝)태권도 관장]

· 진행 : 나채만 (경동대학교)

종합토론

17:20 ~ 17:50

- 종합토론

17:50 ~ 18:00

- 폐회식

· 좌장 : 손천택 (국기원 연구소)

· 목차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추계 학술세미나

태권도 인성교육의 현재와 미래

· 개회사	07
· 세미나 일정	08
· 목차	09
·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11
· 태권도장 인성교육, 어떻게 적용시킬까?	35
·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	47
· 효과적인 태권도 인성교육의 실천방안	67

학문과 현장의 소통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박정준 [인천대학교 교수]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¹⁾

박정준 (인천대학교)

I. 서론

스포츠는 다양한 활동(내용) 안에 내재된 도덕적 속성인 스포츠맨십을 통해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실천중심 프로그램의 자원이 될 수 있다(강신복, 1995; 최의창, 2006; Arnold, 1997; Gould, 2008). 스포츠 활동은 기술, 전략, 연습, 시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인지적 사고와 문제해결과정을 겪게 되며 특히 단체 스포츠 활동은 팀원 간, 상대방, 심판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경험하며 이를 실제 활동(practice 또는 activity)을 통해 실천하면서 스포츠의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스포츠 활동이 욕설 남발, 신체 폭력, 질서의 부재, 차별의식, 이기심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 형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이호철, 권오륜, 2005),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 사람일수록 도덕 판단 능력이 낮다는 회의적인 결과도 간과할 수 없다(Shields & Bredermeier, 1984; Beller & Stoll, 1995). 결국 스포츠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분명한 목표와 내용, 체계적 전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Bredermeier & Shields, 1995).

이 글은 스포츠 활동의 인성 함양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 체육교과의 인성교육적 역할에 대한 교육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스포츠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글은 박정준(2011)의 ‘스포츠는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를 수정, 재구성한 것임.

II. 본 론

1. 스포츠와 인성

1) 스포츠와 인성 발달의 관계

스포츠 활동은 시대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으며, 근대 학교교육은 물론 기원전부터 교육내용의 핵심 영역으로 인정받아왔다. 그리스의 김나지움이나 고대 중국의 대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도 체육활동은 다양하고 필수적으로 가르쳐졌다. 그렇다면 스포츠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체육교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체활동을 통해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 교육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표 3 참조).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Sage, 1988), 최근에는 ‘웰니스’(wellness), ‘홀니스’(wholeness)처럼 신체활동이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운동기능을 발달시킨다는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통한 마음의 건강, 사회적·도덕적 인성 함양 등 정신적 측면의 가치에 대해 주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표 1. 체육의 가치(Bailey 등, 2009, 재구성)

	신체적 가치	인지적 가치	정의적 가치
내용	건강 및 체력 (physical fitness & health) 스포츠 기능 (sports skill)	학업 성적 (academic performance) 지적 기능 (cognitive function) 문해력(literacy)과 수리력(numeracy)	정신 건강 (mental, psychological health) 사회적 기술 (social skill) 도덕적 인격 (moral character)

하지만 Bailey 등(2009)은 체육 활동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킨다거나 사회적 기술을 함양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이론적, 경험적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인지적, 정의적 측면, 즉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과정과 맥락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이 사고와 판단의 인지기능이나 감정과 정서,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는 것은 스포츠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스포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포츠가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는 크게 다음과

같이 스포츠 활동과 인지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도덕성 발달의 측면의 연구 전통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신체활동과 인지 발달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healthy body leads to a healthy mind)는 말처럼 신체활동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Snyder & Sprietzer, 1977).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의 학자들부터 근대 교육학자인 루소에 이르기까지 저명한 학자들은 지적, 정신적 발달은 반드시 신체 발달과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Hills, 1998). 근대의 Piaget와 Guilford와 같은 인지 심리학자들은 유아기의 신체활동을 통한 적절한 감각과 지각(perception)의 발달을 통한 운동 능력의 발달이 전반적인 인지(cognition)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역설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학자들도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유아기 지각-운동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체활동이 인지 또는 학습기술의 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들과 더불어 그 기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Barr & Lewin, 1994). 뇌인지과학(혹은 뇌신경과학)의 발달로 뇌의 특정 구조물, 혹은 신경네트워크의 관찰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동에 의한 뇌 변화뿐만 아니라 운동이 인지기능과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신경과학자, 생리학자, 생물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Ratey와 Hagerman(2008)은 그 동안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인간의 뇌는 움직임을 통해서 진화해 온 ‘운동 뇌’(moving brain)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전두피질이 진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기억’과 ‘예측’이 필요한데, ‘운동 뇌’는 각종 움직임에 관련된 사건들을 기억하고 움직임에 따른 결과들을 예측하고 움직임을 계획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다. 즉 인간의 사고는 움직임이 내면화되어 진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신체활동과 인지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은 신체활동과 뇌기능 향상에 따른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의 발달,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사고 기술(thinking skill)의 증진, 신체활동과 학업성취능력(academic performance)의 발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우민정(2010)은 신체활동과 인지기능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운동이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기전,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유산소 운동 등 장기간의 신체활동은 어린이, 성인뿐만 아니라 특히 유아와 노인, 치매 환자 등의 반응 시간, 처리 속도, 집행기능, 주의력, 집중력 등의 인지능력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곽이섭, 엄상용, 2005; 김양례, 2007; Colcombo & Kramer, 2003; Etnier, 1997; Spirdoso, 1975). 또한 운동과 인지 기능 향상의 기전(mechanism)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 뇌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하였으나 신경세포생성, 신경영양인자의 증가, 혈관세포생성, 신경성장인자 증가 및 세포사멸 감소, 신경교 세포 생성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향상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Cotman, Berchtold, & Christie, 2007).

둘째, 신체활동을 통한 뇌기능의 활성화는 단지 주의력, 집중력 등의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를 조합하고 분석하며 창의적으로 재생산하는 사고기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allahue(1995)는 신체활동의 다양한 동작을 활용한 문제해결 과정은 창의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다양한 운동학습 과정은 뇌에 전달되는 여러 감각 정보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감각정보는 이전의 정보와 융합하여 해석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동화와 조절) 지각(perception)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외적 정보와 사물에 대한 추상적이고 어휘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인지(cognition)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감각-지각-인지의 과정은 신체활동을 통해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 동안 체육교육 분야에서는 전술게임모형 혹은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Tactical Games)과 탐구수업모형(Inquiry Teaching)을 중심으로 신체활동과 인지적 사고기술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과 인지적 사고 기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게임 상황에서의 명제적 지식(예들 들어, 규칙과 같은 실제적 정보)과 절차적 지식(예를 들어, 게임의 제약과 맥락에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필기 테스트 방식으로 수업의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게임의 명제적 지식과 전술적 이해 측면 모두 전통적인 기능중심 게임 수업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Allison & Thorpe, 1997; Griffin, 1995; Turner, 1996; Turner & Martinek, 1999).

탐구수업모형은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체육 지도 방법의 하나로 실천되어

왔지만, 이 수업모형이 학업성취나 사고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타당성을 밝힌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단 Schempp(1982)는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8주간 학생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집단과 교사 중심의 의사 결정 집단으로 나누어 탐구수업모형의 인지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독창성, 정교성,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nnis(1991)는 McBride(1992)가 제시한 비판적 사고접근법으로 이 수업모형을 실행한 결과 학생들의 인지-분석적 기능이 더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McBride와 Bonnette(1995)는 비판적 사고 기능이 스포츠 캠프 활동과 같은 체육수업 외의 상황에서도 함양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Metzler, 2007).

국내의 경우 하나로 수업 모형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체육수업이 단편적인 사고 기술을 벗어나 반성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장원(2007)은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력, 창의력이 신장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신체활동과 관련된 동시 짓기, 반성일지 쓰기는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는 것이다. 또한 글쓰기 과정은 머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단지 문장화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느낌에 대한 상상력과 인지적 창의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다. 또한 서장원(2008)은 전인교육 실천을 위한 초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연구에서 글쓰기, 글읽기, 영화보기 등의 간접체험활동을 적용한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적 창의력과 문해력이 향상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박종길(2008)은 무용 수업에서 글쓰기 과제가 학생들의 표현 능력, 의사소통기술,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42명의 학생을 대상을 12주 동안 읽기와 글쓰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글쓰기 과제가 실험집단의 자기표현능력 중의 인지적, 정서적, 전반적 자기표현능력을, 의사소통기술 중의 자기노출, 주장력, 표현력, 지지, 효율성, 조리성, 목표 간파 기술을 그리고 비판적 사고경향 중의 체계성, 비판적 사고, 자신감, 성숙 성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최근 들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되었으며(Shephard, 1996, 1997; Sallis et. al. 1999),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신체활동 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Lindner, 2002). Getman(1962)은 신체활동이 지능 발달과 학

습 준비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직접 개발한 시-지각운동학습 프로그램을 6세 아동에게 10개월간 실시한 후, IQ에서 7.5점, 읽기 속도에서 2.1년, 이해력에서 2.8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Williams(1983)도 만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Shape-O-Bell'이나 'Frostig' 시-지각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능력의 발달과 일반적인 학업성취도와와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며(.70), 움직임을 통한 지각 발달이 일반 학습의 준비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Brunk(1967)는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와 신체적 특성 및 지각 운동능력과와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지각 운동 능력이 높은 아동의 평균 IQ가 116.5로서 낮은 아동보다 2개 학년 정도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Castelli 등(2007)은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의 체력과 학업 성적에 관한 연구에서 체력과 학업성적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ibley와 Etnier(2003)는 신체활동과 인지 능력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나성욱(1986)은 체력이 우수한 학생 집단이 교과목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민우(2004)는 남·여 초등학생의 체력요인과 학업 성취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체력과 학업 성취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영옥(2006)도 초등학생의 체력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연구에서 남학생의 체력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체력이 좋은 학생이 학업 성적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 외에 최근 국내외에서는 신체활동이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학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전에 관한 뇌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체육수업을 통해 학업성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전략들이 새롭게 눈길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네이퍼빌 센트럴 고교에서 체육교사인 롤라와 젠타스키는 기존의 스포츠 기능 중심의 전통적인 체육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긍정적 체육수업"(positive physical education)²⁾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스포츠 중심의 단체 운동이 신체활동을 촉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혈관 운동에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수업 내용을 변경한다. 둘째, 평가가 유전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과 기록보다 노력을 통해 향상한 정도를 평

2) 이 용어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John Ratey 교수의 저서 'SPARK'에서 전통적 체육수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으며, '운동화 신은 뇌'라는 이 책의 번역서(이상현 역)에서는 '새로운 체육수업'으로 번역되었다. 류태호(2010)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네이퍼빌 고등학교 교사들이 Quality physical education을 Positive PE와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긍정적 체육수업'으로 번역하였다.

가하여 신체능력이 떨어져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활동량을 늘이기 위해 스포츠 활동에서도 축소형 게임을 개발하고 활용한다.”와 같은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비만학생이 감소하고 문제 행동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놓고 있다(Ratey & Hagerman, 2008). 서울의 구현고등학교는 미국 네이퍼빌 센트럴 고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한 ‘0교시 체육수업’을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 주 4~5일씩 매 30분 간 유산소운동을 중심으로 주의력, 기억력, 재미의 요소를 강화한 운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 심리 전문가와 함께 학생들의 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의 인성 및 지적능력을 검사하고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운동반, 공부반, 통제반 세 그룹 중 운동반이 인지적 능력, 정서적 안정감에서 가장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주의력과 기억력이 동시에 상승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성적을 비교한 결과 운동반 학생의 77%가 전년도에 비해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atey와 Hagerman(2008)이 말했던 “운동이 학생들의 감정과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운동을 계속하는 집단의 시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과 일치되는 결과이다(김선일, 2010).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동이 인지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내용들은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먼저 인성의 발달은 사회적·도덕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운동을 통한 뇌기능의 발달은 사회적·도덕적 상황 판단에 필요한 사고와 판단 기능의 생리학적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둘째, 운동과 관련된 명제적, 절차적 활동 지식의 학습은 사회적·도덕적 판단 과정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명료화하는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운동과 관련된 서사적, 인문적 지식의 학습은 사회적·도덕적 실천의 바탕이 되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정서를 내면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사회적·도덕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신체활동과 정서 발달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뜻한다(민중서림편집부, 2010).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

정서 및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내면과 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을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정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 생각과 행동의 동기로서, 판단의 준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에서는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조절하여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인성교육에서 정서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는 자기 이해의 기본이 된다.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며 이를 통해 행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정명화 등, 2005). 특히 긍정적 정서의 경험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높이며 이는 인내, 성실, 용기 등 사회적 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감을 줌으로서 정서적 만족감을 주며 운동 중 또는 후에 세로토닌, 베타엔돌핀 등의 뇌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정청희, 최용주, 1997). 이러한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며 결국 자아실현과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정서는 정서의 순화, 사회적 관계 형성,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정서적 능력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과 같은 정서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자기 자신이나 행동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 자기 준거적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이기도 하며, 또한 도덕적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도덕적 행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덕적 정서로 분류된다(Tangney, 1995).

셋째, 정서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합리적 판단력, 주의집중력, 경험과 정보 습득력, 학습에 대한 동기, 창의력, 평가력, 의미의 재구성 능력 등은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김창대, 강신덕, 1998; Eisenberg & Strayer, 1987; Ekstein, 1972; Hoffman, 1982). 사회적, 도덕적 상황에 대한 이성적 판단의 과정에서도 감성은 합당성

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주어진 상황의 맥락과 타인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통한 감정이입과 배려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정서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서로 감정의 교감을 나누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정서를 공감 있게 전달하는 정서적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Compose, Mumme, Kermorian, & Camps, 1994).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 발달에 비해 정서적, 심리적 발달이 미숙한 단계로 자신의 욕구 불만이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일탈과 청소년 비행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및 정서 조절 능력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행동장애나 비행 등의 부적응 행동의 발생을 막는데 도움이 되며(박경애, 김경은, 2005),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게 된다(Saarni, 1997).

이처럼 청소년기의 긍정적 정서 경험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관계, 도덕적 인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신체활동 또는 운동은 긍정적 정서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수단(Arent, Landers, & Etnier, 2000; Diener & Suh, 1998)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Berger, Pargman, & Weinberg, 2002; Giacobbi, Hausenblas, & Frye, 2005; Landers & Arent, 2001; Thayer, Newman, & McClain, 1994). 또한 신체활동을 포함한 운동과 정서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운동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즐거운 기분 상태를 경험하고,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운동도 자긍심, 활력 등의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킴으로써 불안, 스트레스, 우울, 노여움, 긴장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병준, 성창훈, 1996; 전용진, 손천택, 2006; 정청희, 최용주, 1997; Berger, 1996; Blumental, Emery, & Rejeski, 1998; Dimeo, Bauer, Varahram, Proest, & Halter, 2001; Gauvin & Rejeski, 1993; Parfitt, Markland, & Holmes, 1994; Steptoe & Butler, 1996). 무엇보다 정서는 스포츠 참여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인지적, 심동적 활동의 동기 요인으로서 의미가 크며(Hanin, 2000; 김경숙, 권민정, 2006), 아이들은 무엇보다 스포츠 활동이 재미(fun)와 즐거움(enjoyment)을 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경향이 크다(Boyd & Yin, 1996; Goley & Kirk, 2003; Kimiecik & Harris, 1996; Wankle, 1985). 따라서 스포츠 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서적 동기를 개발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신체활동과 사회성 발달

신체활동을 통한 인격의 발달은 사회적 인성으로서 생활기술(life skill)의 발달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전통과 도덕적 성품의 발달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스포츠심리학과 청소년 발달론 분야에서는 “생활기술”(life skill)이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운동기술”(sport skill)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스포츠에서 배운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자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Gould & Carson, 2008). 생활 기술이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의 환경에서 자신의 가족, 동료, 공동체의 구성원과 생활하면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생활 기술은 행동적 특성(예를 들어, 자제하기)과 인지적 특성(예를 들어, 좋은 결정하기)을 포함하며, 대인적 요소(예를 들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와 개인적 요소(예를 들어, 목표설정하기)로 구분된다(Danish et al. 1993).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청소년기의 움직임 욕구와 활동적인 생활양식 등의 신체적 발달 특성, 소속감과 연대감을 통해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기술 발달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Danish & Hale, 1981; Theokas, Danish, Hodge, Heke, & Forneris, 2008). 무엇보다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체력을 길러주며 이러한 건강과 체력은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정서 안정, 바람직한 행동 실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건으로, 체계적인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기의 가장 바람직한 생활기술 발달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기술 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스포츠 활동과 부정적 행동 및 일탈 예방에 관한 연구, 긍정적 개인적·사회적 기술(personal social skill) 형성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일탈 행동의 횟수가 적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Donnelly, 1981; Hastad, Segrave, Pangrazi, & Peterson, 1984; Schafer, 1972; Segrave, 1983; Segrave & Chu, 1978; Segrave & Hastad, 1982, 1984). 한편 패거리와 관련 있는 부정적인 행동들(범죄, 싸움, 살인)의 대안으로 스포츠 참여가 제안되기도 하였다(Seefeldt & Ewing, 1997). 특히 Trulson(1986)은 공격적 성향 등의 다양

한 인성 검사를 통해 34명의 10대 비행청소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철학적 반성, 명상, 무예 기술 연습을 병행하는 전통적인 태권도 수련 활동이 비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비행 감소,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 측면 향상에서 세 그룹 간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스포츠 참여만으로는 부정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신체적 활동과 함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의 부정적 행동, 일탈 행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을 길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개인적·사회적 능력을 함양시켜 준다. Cooper(1982)는 팀 스포츠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팀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길러주고, 자신의 이기적 태도를 조절하며, 이타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Skubic(1956)과 Seymour(1956)는 리틀 야구 리그에 참가하는 아동들이 참가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리더십, 협력적 태도, 친사회적 행동이 더 우수하게 변화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 생활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발달(Smith et al., 1979; Smoll et al., 1993), 목표 설정(goal setting)능력 향상(Parachaisis et al., 2005), 개인적·사회적 책임감(personal responsibility)의 발달(Martinek & Hellison, 1997; Hellison et al., 2000; Hellison & Cutforth, 1997), 학업 성취(academic achievement)와 학교생활의 충실(Eccles & Barber, 1999; Eccles et al., 2003), 술선수범, 리더십, 팀워크의 발달(Hansen et al., 2003)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Gould & Carson, 2008). 비록 이 연구들이 스포츠 장면에서의 긍정적 행동이 일상으로 전이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스포츠를 통해 생활기술이 향상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기술이 향상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스포츠를 통한 도덕성 및 인격 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 교육학의 도덕성 연구 전통에 따라 크게 스포츠와 도덕적 인지 발달(moral cognition)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도덕적 성품(moral character)의 발달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먼저 지금까지 체육과 스포츠 분야에서의 인성 발달 연구는 주로 Piaget와 Kohlberg, Hann의 구조 발달 이론(structural developmental theory)에 근거하여 체육 및 스포츠와 관련된 도덕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Meakin(1981)은 스포츠와 게임의 규칙들은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결과적으로 스포츠는 도덕적

딜레마를 포함함으로써 도덕 발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이러한 도덕성 발달은 운동참가로 인한 자연적인 결과가 아님을 주장하며 도덕성 발달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의 조건으로 첫째, 학생들은 참여 단계의 초기부터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의 도덕적 관점에 관해 대화를 갖고 반성적 사고를 가져야 하며, 체육교육과정에서 명백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칭찬과 상의 강화작용을 통해 도덕적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도덕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모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artens(1977)은 아이들의 도덕적 성숙을 위해서는 지도자 스스로가 선행의 모델이 되어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에서 각자의 임무수행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알게 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그는 보상을 통한 행위 유발을 경계하며 내적인 도덕적 판단과 원리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Bredemeier, Weiss, Shields와 Shewchuk(1986)은 5~7세의 스포츠 캠프에 참가한 유아를 대상으로 동료 간 협의를 핵심 전략으로 하는 인지 집단, 모델링과 강화를 중시하는 사회화 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여 6주 동안 주 5일, 하루 세 시간씩 다양한 체육활동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들은 매일 페어플레이, 도구 공유, 욕하지 않기, 과격한 행동으로 남을 다치게 하지 않기, 잘못 고쳐주기 등의 도덕적 주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연구 결과 인지 집단과 사회화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도덕 추론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Ronance, Weiss와 Bockoven(1986)도 10~11세의 초등학교 아동을 도덕 추론 능력을 촉진시키는 인지 집단(예를 들어, 도구가 부족할 경우 동료들끼리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활용)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8주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인지 집단의 도덕 추론 점수가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Wandzilak, Carrol과 Ansorge(1988)는 중학교 남자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인지적, 사회학습 프로그램을 9주 동안 복합적으로 적용한 실험집단 내에서 도덕 추론 능력과 스포츠맨십 인지도 등의 도덕적 사고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일어난 것을 발견하였다. Gibbons, Ebbeek과 White(1995)는 체육시간에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과 추론, 의도, 친사회적 행동변화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체계적이고 잘 조직된 도덕발달 정보의 전달은 아동의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덕적 판단은 체육교육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Mouratidou, Goutza와 Chatzopoulos(2007)

은 그리스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제 지향적 풍토'(task-oriented motivation)와 모스턴의 '상호작용 교수스타일'(reciprocal teaching style)을 활용하여 6주 동안 도덕성 발달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도덕 판단 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의 차이는 없었지만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도덕 판단 능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윤만형(1995)은 체육과 스포츠에서의 도덕성 발달 연구를 통해 도덕성의 개념과 도덕성 발달이론, 스포츠와 체육 분야에서의 도덕성 발달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적용 시 분명한 목표와 도덕적인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도덕적 추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Hann의 상호작용 모델을 작용한 도덕성 발달 교수 전략을 구안하였다. 강신복(1996)은 도덕성 발달을 위한 체육교육의 수업모형을 제안하며,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체육의 여러 신체활동과 관련된 도덕 딜레마 토론, 게임 창안, 두 문화(two culture), 경청회(listening bench) 등의 활동을 통해 도덕성의 외적 행동이 아닌 내적 행동과 그 결정 과정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함정혜(2005)는 '스포츠 상황에 대한 가치판단 설문지'(Rudd-Stoll-beller -Hahm Value Judgement Inventory, Rudd, 1998)와 '도덕 판단력 검사'(한국판 DIT 간편형)을 사용하여 체육활동을 통해 고등학생의 도덕적 이성판단과 도덕성 발달 단계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녀는 청소년기 고등학생들은 대다수가 정상 범위인 3단계의 도덕 발달단계에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무론적 이성판단 능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 또한 체육수업이나 정규수업 외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3단계에서 높은 평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무론적 이성판단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의무론적 도덕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가 추구하고 있는 규칙 준수, 정직한 플레이를 의무론적 이성판단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구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포츠와 인성 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스포츠교육학 분야(이대형·김정식, 2003; 이재용, 2000), 스포츠심리학 분야(문익수, 2000; 서지영·문익수; 1994; 원형중, 1993; 최영준·최만식·문익수, 2002)를 비롯하여 스포츠 철학(오현택, 2006; 박성주, 2010; 송형석·이규형, 1994)과 스포츠 사회학의 관점(오순근, 1994; 한명우, 2000)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등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인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박정준, 오승현, 2015; 차은주, 김영재, 2014)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한 인성 함양 효과 검증의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4) 신체활동과 도덕적 성품 발달

스포츠 활동과 도덕성 발달에 관련된 또 다른 연구 동향은 사회화 접근(social learning approach)을 기반으로 한 덕교육적 연구 전통이다. McNamee, Jones와 Duda(2003)는 그 동안 체육교육에서 도덕성 발달과 관련되어 행해진 스포츠심리학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은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학적 이론의 우수성과 성품, 감성, 판단과 같은 이성 이외의 인간 성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Feezell(2004)은 스포츠가 지닌 본래적 윤리성에 주목하면서 스포츠 참가가 도덕성 함양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Arnold(1997)와 마찬가지로 그는 스포츠가 MacIntyre(1984)가 말한 '실천전통'(a practice)이라고 주장한다. 실천전통의 하나로서 스포츠는 원래의 내적 탁월성을 추구하며, 이를 성취하는 과정이 바로 인성의 함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최의창, 2007). Jones(2005)도 도덕교육은 "좋은 사람(a good person)"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체육교육은 학생이 좋은 성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Lumpkin(2008)은 도덕적 인격 혹은 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도덕적 가치 판단과 함께 교사가 도덕적 모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도덕 판단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가치가 자신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며 특히 교사는 이러한 도덕적 추론의 과정에서 중요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비록 그녀는 스포츠 인성교육에 있어 인지주의적 접근에 기반하여 도덕적 추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모범과 행위의 습관화를 강조하며 통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박종률(2002)도 다양한 방법을 통합한 스포츠 도덕 발달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12주간의 도덕성 발달 전략을 적용한 체육수업을 통해 남자 고등학교 학생의 도덕성 발달 과정과 도덕적 인식, 행동의 변화를 규명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첫째, 도덕적 인식을 스포츠맨십 개념에 대한 인식과 성취 기대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도덕적 행동을 스포츠맨십 행동과 실천 윤리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스포츠의 참여 효과는 참여 과정의 경험 내용과 질에 의해 결정되며,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갈등과 추론을 경험시키고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스포츠맨십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천이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덕교육적 관점의 영향을 받아 체육교육에서도 서사적 접근에 주목하는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서사적'이라는 말 속에는 '이야기'라는 의미와 감성적 체험을 가져다준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전자는 시, 소설, 자서전, 수필 등의 문학이 대표적이며, 후자로는 예술적 영역에 해당하는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사진 등이다.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감각적 수용기를 통해 이야기를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내면의 인성적 차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Carr, 2005, 2006).

Jones(2005)는 학생들의 도덕적 성품 함양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강조하며, 직접적인 활동 외에 도덕적 선(moral goodness)에 관한 다채롭고 맥락 특수적인 이야기를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Jones(2008)는 이를 위해 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스포츠 활동에서 상황적 민감성(situational sensitivity)과 맥락(context)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다양한 도덕적 인격의 모범적 사례들이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최의창, 2007).

체계적이며 올바른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스포츠 활동은 분명 학생들의 도덕적·인격적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육과 스포츠가 학생들의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론적·경험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포츠와 인성 발달에 관한 명확한 증거는 부족한 편이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어떤 스포츠 활동이 어떤 인성 함양에 영향을 미쳤는지, 학생들의 행동과 성품은 어떤 인성과 관련이 있는지, 인성 함양 과정과 양상은 학생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성 함양 요인과 프로그램 실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등 실행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 그 과정과 결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드러내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Theodoulides & Armour, 2001). 이것이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의 이론적 체계성 확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있는 실천 프로그램, 연구 과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담보한 스포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이다.

III. 결 론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나 기전을 검증하는 일 혹은 보다 논리적이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일이 아직 미흡하고 짙은 안개 속과 같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학교가 당면한 인성교육의 역할과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

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스포츠와 마음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mechanism)과 미스티시즘(mysticism) 사이를 오가며 부단히 이론적·경험적 노력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최의창, 2010a).

체육 활동을 하게 되면 도덕적 인격과 같은 단지 긍정적인 가치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 협동심, 준법성, 정직성과 같은 인성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여러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인성교육에 있어 스포츠의 역할은 긍정적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Etizen, 1999; Griffin, 1998). 오히려 스포츠 참가자들의 도덕 판단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우선 콜버그의 인터뷰 기술을 이용한 Hall(1986)의 검사나 Rest의 도덕 판단력 검사(Defining Issues Test: DIT)를 이용한 Shields와 Bredemeier(1984), Beller(1990), Beller, Stoll, Burwell과 Cole(1996), Carrodine(1993), Krause와 Priest(1993), Stevenson(1998)의 연구는 대학의 운동선수들이 일반 대학생보다 도덕 판단능력 점수가 낮으며, 특히 팀 스포츠 선수가 개인 스포츠 선수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HBVCI (Hahm-Beller Values Choice Inventory)'를 사용한 Beller와 Stoll(1995)의 연구는 고등학교의 팀 스포츠 선수가 일반 학생보다 도덕 판단 능력 점수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hields & Bredemeier, 2005). 이 외에도 스포츠 장면에서 나타나는 선수들의 비윤리적인 행동과 비스포츠맨십적인 행동, 일상생활에서의 몰상식적 언행과 비신사적인 행위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와 일상적 체험 모두 체육활동이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의 경쟁적 특성과 인간의 본능적 욕망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성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의창, 2010).

결론적으로 스포츠는 긍정적인 면(예를 들어, 팀워크, 감정조절 및 술선수법)과 부정적인 결과(예를 들어, 속임수와 같은 비도덕적 행동의 강화, 약물 중독)를 동시에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인성의 발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인성 발달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적절한 전략과 함께 올바른 환경에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가르쳐져야만, 스포츠 활동은 인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Carr, 1998; Eccles & Barber, 1999; Eccles et al., 2003; Hansen et al., 2003). 즉 체계적인 프로그램(예를 들어, 분명한 규칙과 책임, 사회적 규정), 훌륭한 역할 모델(지도자의 지원)과 효과적인 교수 방법, 적절한 환경 요인이 마련된다면 스포츠는 학생들의 인성을 발달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Hellison & Cutforth, 1997; Holt & Sehn, 2008;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 2002; Shield & Bredemeier, 2008).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과정에서 투입되

는 내용과 방법의 신뢰성과 충실성(fidelity), 과정과 결과,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해석이 축적될 때 비로소 스포츠 인성교육은 질적인 성과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복(1996). 도덕성 발달을 위한 체육교육의 수업 모형.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52, 107-127.
-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2008).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 곽이섭, 엄상용(2005). 1년간의 복합 운동프로그램이 남성 치매환자의 운동능력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Life Science**, 15(2), 220-224.
- 권민정, 김경숙(2006). 중학교 체육교사의 정의적 영역 수업방식 탐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3), 45-64.
- 김병준, 성창훈(1996). 스포츠 동기요인으로서의 재미: 개념 및 관련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2), 99-122.
- 김창대, 강신덕(1998). 정서교육과 집단상담. **집단상담연구**, 1, 77-96.
- 김태훈(1999). **덕교육론**. 서울: 양서원.
- 김현오(1990). **현대인의 인성: 인간이해를 위한 다각적 접근**. 서울: 홍익제.
- 나성옥(1986). **중학생의 교과목 성적과 일반 운동능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남궁달화(1999).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 박병기, 추병완(1996). **윤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 박재주(2008). 덕의 통합성과 통합적 접근의 도덕교육. **윤리교육연구**, 15, 169-192.
- 박종길(2007). 문제중심무용학습이 중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2), 105-122.
- 서장원(2008). 글쓰기로 체육활동 내면화하기.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3), 89-105.
- 우민정(2010). 운동과 인지기능간의 관계: 뇌과학적 증거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9(2), 133-146.
- 음영옥(2006). **초등학생의 체력 및 체격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 이원희, 강현석(1999). 인성교육의 접근방식.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34, 291-317.
- 정명화, 강승희, 김윤옥, 박성미, 신경숙, 신경일, 임은경, 허승희, 황희숙(2005). **정서와 교육**. 서울: 학지사.
- 정창우(2008).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 정청희, 최용주(1997). 운동참가가 정서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8(1), 57-68.

- 조난심(2004). **인성평가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 차은주, 김영재(2014).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청소년의 스포츠 인성 차이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3(1), 25-34.
- 박정준, 오승현(2015). 중학생의 스포츠 인성 척도 개발 및 수준 분석. **체육과학연구**, 26(3), 611-625
- 최병태(1996). **덕과 규범: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최의창(2003). **인문적 체육교육**. 서울: 무지개사.
- 최의창(2006). **가지 않은 길: 인문적 스포츠교육론 서설**. 서울: 무지개사.
- 최의창(2007). 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교육탐색: 현황, 동향,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1-23.
- 최의창(2010). **인문적체육과 하나로수업**. 서울: 레인보우박스.
- 추병완(2004).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 한국교육개발원(1994).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 모형 개발 및 평가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함정혜(2005). 고등학생의 체육활동을 통한 도덕적 가치판단과 도덕성발달단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9(4), 69-76.
- Allison, S., & Thorpe, R. D. (1997). A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of two approaches to teaching games within physical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8(3), 17-21.
- Arnold, P. (1997). *Sport, ethics and education*. London: Cassell.
- Bailey, R., Armour, K., Kirk, D., Jess, M., Pickup, I., & Sanford, R. (2009). The educational benefits claimed for physical education and school sport; An academic review.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24(1), 1-27.
- Barr, S., & Lewin, P. (1994). Learning movement: Integrating kinesthetic sense with cognitive skills.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28(1), 83-94.
- Beller, J., & Stoll, S. (1995). Moral reasoning of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and general students: An empirical study versus personal testimony. *Pediatric Exercise Science*, 7, 352-363.
- Bredemeier, B., Weiss, M., Shields, D., & Shewchuk, R. (1986). Promoting moral growth in a summer sport camp: The implementation of theoretically grounded instructional strategi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15, 212-220.
- Carr, D. (1991). *Educating the virtue: An essay on the philosophical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and education*, 손봉호, 김혜성 역(1997). **인성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Carr, D. (2005). On the contribution of literature and the arts to the educational cultivation of moral virtue, feeling and emo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4(2), 137-151.

- Carr, D. (2006). Moral education at the movies: On the cinematic treatment of morally significant story and narrative. *Journal of Moral Education*, 35(3), 319-333.
- Coakely, J. (2001). *Sport in society*. St. Louis, Mo: C. V. Mosby Co.
- Colcombe, S. & Kramer, A. G. (2003). Fitness effects on the cognitive function of older adults: a meta-analytic study. *Psych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 14, 115-130.
- Cooper, W. E. (1982). Association: An answer to Egoism.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9, 66-68.
- Donnelly, P. (1981). Athletes and juvenile delinquent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dolescence*. 16, 415-431.
- Eccles, J. S., Barber, B. L., Stone, M., & Hunt, J. (2003).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59, 865-889.
- Etnier, J. L., Salazar, W., Landers, D. M., Petruzzello, S. J., Han, M., & Nowell, P. (1997). The influence of physical fitness and exercise upon cognition function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9, 249-277.
- Eitzen, D. (1999). *Fair and foul: Beyond the myths and paradoxes of sport*. New York: Rowman & Little field.
- Flanagan, O. (1996). *Self-Expressions: Mind morals and the meaning of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ena, W. K. (1963). *Eth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allahue, D. L. (1995). *Understanding motor development in Infants, children, adolescent, adults*. Iowa: WCB Brown & Benchmark Publishers.
- Getman, G. N. (1962). How to develop Your child's intelligence. Luverne, MN: Authur. Gibbons, S. L., Ebbeck, V., & Weiss, M. R. (1995). Fair play for kids: effects on the mor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physical educat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6(3), 247-255.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Gould, D., & Carson, S. (2008). Life skills development through spor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 58-78.
- Griffin, R. (1998). *Sports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uccess on the field and in life*.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
- Hansen, D. M., Larson, R. W., & Dworkin, J. B. (2003). What adolescents learn in organized youth activities: a survey of self-reported developmental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25-55.

- Hellison, D. (2002). *Youth development and physical activity: linking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Hills, A. (1998). *Scholastic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sport*. In K. M. Chan & L. Micheli(Ed), *Sports and children*.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Hoffman, M. (1982). *Affect and moral development*. In Cicchetti, D., & Hesse, P. (Ed), *Emotional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Holt, N. L. & Sehn, Z. L. (2008). Processes associated with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in competitive youth sport, In Holt et al. (Ed),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pp. 24-33). New York: Routledge.
- Jones, C. (2005). Character, virtue and physical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1(2), 139-151.
- (2008). Teaching virtue through physical education: Some comments and reflections.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3(3), 337-349.
- Kohlberg, L. (1984). *Essays in moral development, vol. II: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 Kupperman, J. J. (2005). *How Not To Educate Character*. In D. Lapsley, C. Power(Eds.).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pp. 201-217) Notre Dame, Indiana. Lickona, T. (1991).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 Lickona, T., & Davidson, M. (2005). *Smart and Good High Schools: Developing excellence and ethics for success in school, work, and beyond(report)*. Cortland, NY: Center for 4th and 5th R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ollege at Cortland.
- Linder, K. (2002). The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academic performance relationship revisited. *Pediatric Exercise Science*, 14, 155-169.
- McFee, G. (2004). *Sport, rules and values: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into the nature of sport*. London: Routledge.
- McNarmee, M. J., Jones, C., & Duda, J. (2003). Psychology, Ethics and Sport: Back to an Aristotelian Museum of Normalc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and Health Sciences*, 1(1), 15-29.
- Meakin, D. C. (1981). Physical education: An agency of moral educatio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15, 241-253.
- Metzler, M. (2003). *Instructional models for physical education(2nd ed.)*. New York: Allyn and Bacon.
- Parker, M., & Stiehl, J. (2004).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annehill, D. & Lund, J.(Eds.). *Standard based curriculum*(pp. 163-192). Boston, MA: Jones and Bartlett.

- Papacharisis, V., Goudas, M., Danish, S. J., & Thedorakis, Y. (2005).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a life skills program in a sport context.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7*, 247-254.
- Peters, R. S. (1966).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이홍우.조영태 역(2003). 윤리학과 교육(수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Norton.
- Romance, T. J., Weiss, M. R., & Bockoven, J. (1986). A program to promote moral development through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5*, 126-136.
- Rudd, A. (1998). *Sports' perceived ability to build charac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daho.
- Saarni, C. (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In Lewis, M., & Haviland, M. (Ed), Handbook of emotion. NY: Guilford Press.
- Sage, G. (1988). Sports participation as a builder of character?. *The World and I, 3*, 629-641.
- Schempp, P. (1982). *Enhancing creativity through children making decisions*. In M. Pieron & J. Cheffers(Ed), Studying the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pp. 161-166). Leige, Belgiu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hysical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 Seefeldt, V. (1982). The code of ethics for youth sport coaches. East Lansing, MI: Institute for the Study of Youth Sports. Segrave, J. O., & Hastad, D. (1982). Delinquent behavior and interscholastic athletic participation. *Journal of Sport Behavior, 5*, 96-111.
- Seymour, E. W. (1956). Comparative study of certain behavior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and non-participant boys in Little League baseball. *Research Quarterly, 27*, 338-346.
- Shields, D., & Bredemeier. B. (1995). *Character development and physical activit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Shields, D., & Bredemeier. B. (2005). *Can Sports Build Character?* In D. Lapsley, C. Power(Ed.).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pp. 121-139) Notre Dame, Indiana.
- Shields, D., & Bredemeier. B. (2008). *Sport and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In L. Nucci. & D. Narvaez(Ed.),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pp. 500-519). New York: Routledge.
- Shields, D., & Bredemeier. B. (2009). *True competition: A guide to pursuing excellence in sport and societ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Skubic, E. (1956). Studies in Little League and middle League baseball. *Research*

- Quarterly*, 27, 97-110.
- Smoll, F. L., Smith, R. E., Barnett, N. P., & Everett, J. J. (1993). Enhancement children's self-esteem through social support training for youth sport coach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602-610.
- Snyder, E., & Sprietzer, E. (1977). *Sport Education and schools*. In G. Lueschen & G. Sage(Ed), Handbook of social science of sport. Champaign, IL: Stipes.
- Tangney, J. P. (1999). *The self-conscious emotion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In Dalglish, T., & Power. M.(Ed),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NY: John Wiley & Sons.
- Theodoulides, A., & Armour, K. M. (2001). Personal,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Through Team Games: Some Critical Question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7(1), 5-23.
- Trulson, M. E. (1986). Martial arts training: A novel cure for juvenile delinquency. *Human Relations*, 39, 1131-1140.
- Turner, A. P., & Martinek, T. J. (1999). An investigation into teaching games for understanding Effects on skill, knowledge and game play.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0, 286-296.
- Wandzilak, T., Carroll, T., & Ansoorge, C. (1988). Values development through physical activity; Promoting sportsmanlike behaviors, perceptions, and moral reasoning.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8, 13-23.
- Williams, H. G. (1983). *Perceptual and motor development*. NJ: Prentice Hall, Inc.

학문과 현장의 소통

태권도장 인성교육, 어떻게 적용시킬까?

강세웅 [KTI 태권십 인성교육 위원장]



태권도장 인성교육, 어떻게 적용시킬까?

강세웅 (KTI 태권십 인성교육 위원장)

I. 서 론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본 지도자가 생각하는 인성 교육이란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인생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올바른 습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태권도를 통해 올바른 습관이 만들어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의 태권도장 평균 인원수가 70명 정도라고 한다. 안타깝고 힘든 현실이다. 하지만 본 지도자와 함께 공부하며 인성교육을 태권도에 적용시켜 운영하는 도장들은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다. 이에 현재 태권도장에서 다수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태권도 지도자로서 인성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현장 적용시켰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II. 본 론

태권도장의 기본은 뭘까? 태권도를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각자의 관장님들께서 생각하는 태권도장의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태권도장의 운영 목적은 엘리트 체육인의 양성일까? 물론 태권도장이니까 태권도 기능 향상은 당연히 향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체를 위한 도장 경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신입 수련생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태권도장에 입문 상담할 때 부모님이 태권도장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대다수는 인성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자신감이 없는 아이는 자신감을 향상 시켜 주길 원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기를 바라며, 버릇없는 아이는 예의바른 아이로 가르쳐 달라고 대부분 요구한다. 즉, 태권도를 위한 실력향상만을 목적으로 태

권도장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태권도 기능 향상에 대한 교육 준비를 하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인성교육의 준비는 태권도를 통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태권도 지도자들조차 인성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교육하는지 명확히 모를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지도자는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미디어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본 지도자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인성교육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 인식의 전환이 필요

태권도장에서 인성교육을 지향한다면 신체를 위한 태권도 교육에서 벗어나 신체를 통한 교육을 해야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기의 룰은 관중에 의해 변하며, 많은 음식들도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변화하듯이 태권도 교육도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변화 및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와 진화는 수련생의 수련만족과 부모님들이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목적에 부합하는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지도자와 수련생, 부모님들이 모두 힘을 모아 태권도를 지도해야 좋은 인성교육 제대로 이루어지며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태권도 기능만을 강조하며 태권도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현 시대에 뒤 떨어져 수련생 수도 감소할 수 있어 성공적인 태권도장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태권도로 행복을 가르친다.

도장에 와서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에게 태권도를 위한 신체활동 교육만 실시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태권도가 목적이 아니라 태권도를 통한 행복한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태권도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자. 태권도를 배웠던 많은 지도자들은 태권도 기능 향상을 위한 준비운동은 필수적으로 실시하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준비 운동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 오신 많은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각 도장의 지도자들은 태권도 수업 전 교육준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인성교육을 태권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신체를 위한 운동 뿐 만 아니라 인성교육 준비와 발달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기초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1) 인성교육을 위해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과 눈

차별 없는 생각과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시를 들어보자. 아래 시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시다. 이 시안에는 불평등한 요소들이 있다. 불평등한 요소들을 찾아서 평등한 글로 만들어 보도록 하자.

원스턴 씨는 영국사람
그에게는 알라오라는 친구가 있어
알라오는 아프리카 사람
원스턴 씨는 의사이고
그의 친구 알라오는 농부라네
원스턴 씨는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지

원스턴 씨는 영국사람
알라오씨는 에티오피아 사람
원스턴 씨와 알라오씨는 서로 친구라네
원스턴 씨는 의사이고 알라오씨는 농부라네
원스턴 씨는 알라오씨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지
알라오씨는 원스턴 씨에게
살아갈 수 있는 쌀과 과일을 주지
둘은 사이좋은 친구라네

위에 시처럼 차별적인 요소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제자들은 지도자들에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자들을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한다. 제자들은 태권도를 배울 권리가 있고 스승님들은 제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권리가 있다.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기 때문이다.

2)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

- ① 인성교육 스토리 만들어 보기
- ② 진심을 표현하는 연습
- ③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 만들기

3) 인성교육을 위한 기초 연습과정

① 발성과 발음 연습

지금부터 나와 발성과 발음 연습을 해보겠다. 첫 번째는 발성연습이다. 아~ 아~아~아~아~ 다음은 발음 연습이다. 아에이오우,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가각-나낙-다닥-라락-마막-바박-사삭 -아악-자작-차작-타탁-카각-파팍-하학, -가간-나난-다단-라란-마만-바반-사산-아 안-자잔-차찬-타탄-카칸-파판-하한.

빠른 발음 연습을 해보겠다.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 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언어적인 전달력을 높여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② 음색 연습

음색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명을 가르칠 때와 100명을 가르칠 때, 1,000명을 가르칠 때 음색을 달리해야 한다. 음색에는 총 세 종류가 있다. 음량, 음질, 음폭이다. 음량은 말 그대로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다. 연습해보자. 음질은 목소리의 굵고, 가늘이다. 음폭은 목소리의 높낮이를 말한다. 애들아, 누구냐, 이리와, 이 녀석 등으로 연습할 수 있다. 음량, 음질, 음폭 이 세 가지를 자신의 목소리로 만들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면 지도력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③ 표정 및 제스처 연습

극장이나 드라마에서 연기를 잘 하는 사람들의 연기를 보면 시청자들은 감정이 이입이 되어 연기자의 웃는 모습 또는 우는 모습에 따라 웃거나 울게 된다. 이는 바로 연기자의 연기력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인성교육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거나 의미를 전달할 때 연기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제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긍정적인 표정으로 웃으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수업하는 과정이 즐거울 수 있도록 말이다.

예를 들어 내향적이며 소극적인 아이의 작은 변화를 포착했을 때는 그 변화에 기뻐하며 제자를 안고 행복해 해야 한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래서 표정 연습과 몸으로 표현하는 제스처가 중요하다. 지도자로 하여금 태권도 수업이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도장의 제자들은 지도자가 양팔을 벌렸을 때 달려와 안기는 모습이 만들어진다.

지도자는 항상 반듯한 자세와 외모로 제자들과 학부모님에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수업을 할 때는 당당한 모습과 재밌는 모습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자들과 수업을 할 때 한 명 한 명 눈 맞춤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관심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끔 해야 한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며 귓속말과 무언의 긍정 몸짓을 보여주며 지도자를 신뢰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본 운동 중간 중간에 추임새(그렇지, 옳지, 그거야, 되잖아, 좋았어, 할 수 있어 등)를 넣어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2. 태권도장에서의 인성 교육을 적용하는 실제 준비

1) 인성교육 스토리 만들어 내기 초급단계

태권도를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등 어떤 교육을 적용시키고 싶은지 이야기부터 만들어 봐야 한다. 그렇게 대화로 동기부여를 하고 그다음 하고 싶게끔 만들고 운동을 시작해 보자. 아이들의 생각이 만들어 졌기에 몸은 열심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주 아프시고 병원에 자주 가는 모습을 본 아들이 병원에 자주 가는 어머니를 보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만들어 졌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의사가 되어 어머니를 직접 고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

여 의사가 됐다. 이렇듯 의사가 되어 어머니를 고치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가 몸을 움직이게 했다. '해라! 해라!'가 아니고 하고 싶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교육 만들기 초급 단계

(2016. .)

사범

☆ 변 화 의 불 씨 ☆	주 제 (교육내용)	
	도 입 (서 론)	
	내용전개 (본 론)	
	결 론	
	심어주기	

2) 인성교육과 태권도 기능 교육을 연결시키는 연습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 하기

(2016. .)

사범님

☆ 변 화 의 불 씨 ☆		인성(人性) = 사람 교육	신성(身性) = 태권도 기능	심성(心性) = 감성교육	시간 분배
	주 제 (교육내용)				
	도 입 (서 론)				1분
	명 상				3분
	내용전개 (본 론)	의미전달 or 정보전달 대의명분 or 극과극 목표전달 or 의미전달	준비 운동 (변형)		10분
	태권도를 통한		보조 운동		20분
	인성 고리 만들기	목표운동 추임새 눈맞춤 검사 스킨십 우상화	본 운동 (연령, 인원, 수준)		40분
	결 론	A-B-A 보상 확인	정리운 동		45분
	전달사항	도장의 행사 도장의질서 생활행동유도			50분
	심어주기 (인사받고)	끝까지 책임지고			55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권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거나, 인성교육 방법에 익숙지 않은 지도자들은 인성교육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단발적으로 한 번에 이야기로 동기부여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1시간 동안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훈련하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성교육 이야기 만드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인성교육 이야기를 통해 운동과 연결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직함에 대한 인성교육이 필요할 경우에 하루 수업이다.

‘관장님이 태권도 시범으로 해외 나가기 전에 새벽까지 운동했단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잤더니 늦잠을 자버린 거야. 이런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벌컥 벌컥 마시고 버스터미널을 가서 버스를 타려는 순간 화장실이 너무 급해져서 화장실을 찾게 됐단다. 손가락으로 똥꼬를 막고 걸어가고 있었단다.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설사가 나올 것 같은 고통을 참고 화장실 첫 번째 문을 열었는데!!! 누가 엄청나게 큰 똥을 찌는지 변기가 막혀 물이 찰랑 찰랑 똥이 넘쳐 나올 거 같아서 볼일을 못 봤단다. 다시 젓 먹던 힘까지 아랫배에 힘주고 손가락으로 똥꼬를 막고 옆칸으로 이동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바닥에 똥을 싸놔서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못 싸고, 다음 칸은 가래침과 담배꽂초가 사방에 붙어 더러워서 못 싸고... 마지막 남은 한 칸에 희망을 안고 갔는데... 오예~ 다행히 깨끗해서 볼일을 뽕뽕 뿌리직 풍당 뿌~~ 뽕뽕!!! 할 수 있었단다. 볼일 보며 생각한 게 이 변기에 앉아있던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볼일도 볼 수 있었고 해외 시범도 갈 수 있는구나! 그래! 정직함은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행동이 똑 같은 거구나! 나도 정직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겠구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도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오늘 관장님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정직한 마음 키울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자! 그럼 오늘 태권도 배우면서 정직한 마음을 키워보자꾸나!!! 전체 일어섯!’

이렇게 태권도를 통한 오늘의 주제선언을 ‘정직한 사람이 되자’ 라고 동기부여를 한 다음 그날을 태권도 수업 종류를 실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품새를 한

다고 하면 “관장님, 사범님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품새를 하는 제자들은 나중에 마지막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란다.” 하면서 계속해서 과정에 대한 칭찬을 추임새를 통해서 피드백 해준다.

품새 뿐 만 아니라 기초체력, 미트 발차기 등을 적용 할 수 있다. 수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제에 관한 피드백을 해주면 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태권도를 통해서 정직함을 배웠다고 인식하며 행복하게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준비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발표력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다.

Ⅲ. 결 론

시대 흐름에 맞게 태권도장에서 인성교육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 일선의 도장은 제자들에게 운동 기능을 전수하기 위한 준비는 많이 하지만 정작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태권도장에서 인성교육을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감히 생각한다. 인성교육을 준비하는 방법과 준비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성교육 준비과정을 등한시 하며 태권도장에서 재미만을 추구한다면, 타 도장에서 실시하는 새롭고 더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자들이 떠날 수 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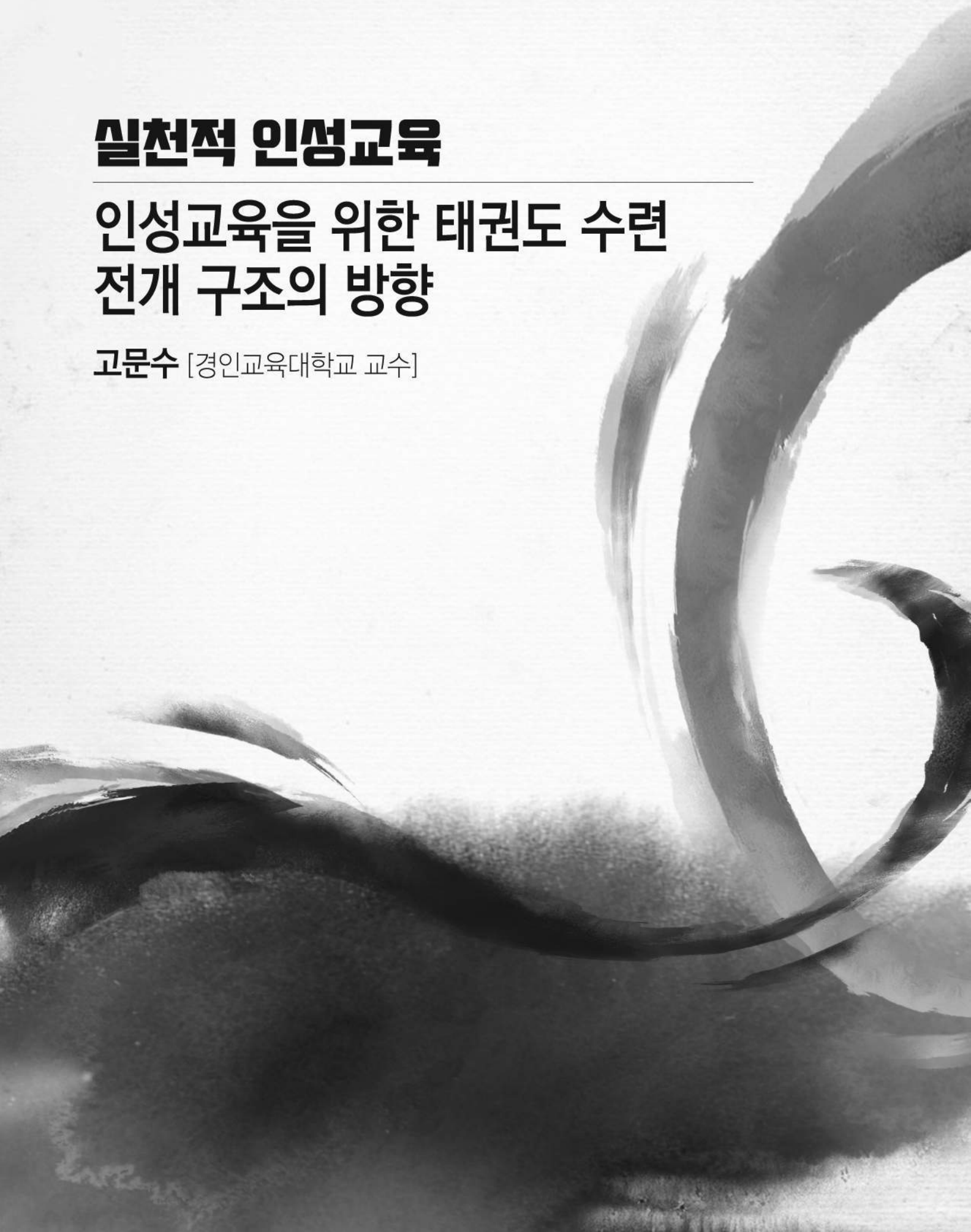
하지만 인성교육을 통해 태권도의 정신교육을 매일 같이 실시하면서 확인해 준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즉, 제자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을 올바르게 채워주려고 하는 지도자의 진심이 담긴 교육이 제자들을 흔들림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수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태권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며 태권도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스포츠맨십이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듯이 태권도인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을 우리는 태권십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자의 생각과 지도 방법이 태권도를 통해 행복을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방향을 달리하면 제일 먼저 지도자가 행복할 것이며, 그다음 제자들 행복해 질 것이다. 제자들이 행복해진다면 도장이 행복해 질 것이고 나의 미래도 행복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천적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

고문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

고문수 (경인교육대학교)

I. 서 론

태권도 교육과정은 수련생들에게 태권도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종합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수련생들에게 태권도의 가치와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수련생들은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표출할 수 있고, 도덕적 의식의 조화를 경험한다(고문수, 이지훈, 2013; 김석련, 2012a, 2012b; 천성용, 최영옥, 박동수, 2013). 무엇보다 태권도는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과 심신을 단련시키는 교육적 내용을 포함하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문수, 손천택, 2004; 고문수, 이지훈, 2013; 손제열, 손천택, 2006).

지금까지 태권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각 대학 태권도학과와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동호, 조순묵, 2004; 최명수 외 3인, 2006)을 조사하거나 태권도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을 통한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김용범, 2009; 임관인, 2006; 손천택, 박상봉, 2010) 그리고 태권도 사범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이지훈 외 2인, 2007)가 진행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태권도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수련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과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시점이다. 특히, 태권도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손천택 외 7인(2012)이 개발한 WTA 전문교육과정이 개발되었으나 이는 태권도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르치는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태권도 지도자 양성과정과 태권도 1.2급의 지도자 교육과정이다. 특히, 태권도 교육과정 내에 인성과 관련된 부분과 이를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제공되지 않아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의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발된 태권도 교육과정이 해당 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 인성의 요소를 포함하여 지도하는지, 수련생들은 태권도 도장에 다니면서 건강한 삶과 건전한 삶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태권도장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추후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생 교육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도 그것을 도장에서 바르게 운영하지 못한 다면 태권도 교육의 큰 흐름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태권도장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한 다면 어떠한 방법과 구조를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도장에서 50~60분 단위로 이루어지는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인성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인성교육의 내용이 수련과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될 때 수련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나라 안팎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차에 국기원 태 권도 연구소 학술 세미나에서 태권도 교육에서 인성을 논하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 인다. 국가 사회를 막론하고 교육 또는 수련을 하는 기관이라면 이 부분은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기원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태권도 수련 이 이루어지는 도장에서 태권도를 통한 인성 교육의 중요성과 태권도를 통한 인성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추후 태권도가 신체수련이외에도 학생들의 인성과 정 서를 높이는 부분에 긍정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이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 제공되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 으로 제공되거나 수련의 과정에 포함하여 지도하지 않는다면 인성교육의 실재성은 구체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현행 태권도 도장에서 이루어지는 태권도 수련의 구조와 태 권도 수련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 인성중심 태권도 수련의 모습을 탐색한 후 태권도와 인성교육이 관련성을 맺기 위한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 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태권도 교 육에서 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련 전개 구조를 탐색하는 것은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지도 방법을 확장시켜주고, 태권도 수련생들에게는 태권도를 통한 건전한 정신 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발표에서는 태권도 지도자 4명과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초등 교사 출신의 박사학위소지자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 인성교육과 태권도 수련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채 관장은 5년 동안 사범을 하였고, 현재는 14년째 관장을 하고 있다. 채 관장은 인성교육과 품새 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품새 지도의 과정에서 수련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특징이 있다. 성 관장은 15년째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련시간에는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인 수련활동과 인성교육을 통해 관원 생들의 몸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이면 몰도바에서 태권도 교육봉사를 하면서 태권도의 보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김 관장은 7년 동안 사범생활을 했고, 17년째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관원 생들의 수련활동과 인성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최 관장은 5년 동안 사범생활을 했으며 15년째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수련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고 수련시간에는 철두철미한 자세와 태도로 수련을 진행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체육교육에서 인성교육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엄 교사는 15년차 남교사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관심을 갖고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성발달 측면에 체육활동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측면의 발달을 가져오기 위해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학습자의 내면적 발달과 성장에 관심이 많다. 특히, 체육과 수업에서 인성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체육과 수업 구조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 교사는 16년차 남교사로 동료교사들과 교수·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꾀하고 있다. 교사의 노력이 학생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교사의 역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체육수업에서 교수전략과 수업모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동학습의 구조를 활용한 학생팀성취배분과 팀게임토너먼트를 활용한 수업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김 교사는 18년차 남교사로 체육활동에서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에 변화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업의 전개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기존의 수업 절차인 도입, 전개, 정리의 순서보다는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해와 체험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본 발표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였고, 어떠한 정보도 연구참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윤리성을 고려하여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2. 자료수집

태권도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도장의 관장 4명과 태권도와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초등 교사 3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각각 1회의 인터뷰를 60분 동안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들이 근무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였다.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였고, 태권도 수련에서 인성교육의 내용 요소는 무엇인지, 수련의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면담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나 이메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3. 자료분석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태권도 교육현장에서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태권도 지도자들과 태권도 수련에서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초등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태권도 인성 관련 자료 및 스포츠 분야에서 개발된 인성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radley(1979)가 제안한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연구의 타당성, 즉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순환과정에서 연구자의 지나친 편견으로 인하여 왜곡된 자료 해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Ⅲ. 태권도 수련을 말하다

‘태권도 수련을 말하다’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태권도 도장에서 이루어지는 태권도 지도자들의 태권도 수련의 일련의 구조와 태권도 수련을 통한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였고, 태권도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태권도 수련의 구조 속에 인성교육의 모습이 스며들었는지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태권도 수련의 구조와 그들의 생각하는 인성교육의 모습은 태권도 수련에서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인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1. 태권도 수련의 구조

현행 도장에서 이루어지는 태권도 수련의 구조(틀)는 수련생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심동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인지, 인지적 또는 정의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측면의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지 등에 따라 수련생들의 태도가 서로 다르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태권도를 운영하는 4명의 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태권도 수련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태권도 수련의 구조는 50~60분 단위로 이루어지는 태권도 수련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운영 내용의 일반적인 틀을 의미한다. 태권도 수련은 관장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채 관장은 5분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명상), 준비운동(5분), 본 운동(35분), 정리운동(5분) 등으로 운영하였다. 성 관장은 준비운동(10분), 기본동작 및 발차기(10분), 본 운동(20분), 정리운동(5분), 칭찬(5분) 등으로 운영하였다. 김 관장은 스트레칭 및 웅변(10분), 인성교육(10분), 체력단련(15분), 기본 동작 및 그날의 진도(20분), 마무리운동(5분) 등으로 운영하였다. 최 관장은 출결확인 및 복장검사(5분), 명상의 시간 후 인성교육(5~10분), 준비운동(5분), 본 운동(30분), 보조운동(5~10분), 정리운동(5분) 등으로 운영하였다.

여기서 해당 관장별로 인성교육의 지도 방법을 살펴보면 채 관장은 5분 인성교육의 내용을 위해 매달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 1년간 12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지도하였다. 매월 초에 인성교육을 하고 매주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한 후 매월 말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채 관장은 교육에 임하는 자세부터 복장과 태도 등을 여러 상황에 맞춰 인성교육을 적용하였다.

성 관장은 매주 월요일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예절교육과 언어교육을 운영하였다. 특히, 승품심사를 다녀온 친구들에게는 2주간 인성교육 점검표를 배부하고 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지키고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면 1품 띠를 지급하

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운영하였다.

김 관장은 태권도의 5대 정신을 항상 주지시켰다. 그리고 5대 정신의 내용을 웅변으로 만들어 소리 내어 외우도록 하고 발표를 통해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주 인성교육의 주제를 정해 손 인형을 이용하여 흥미 있게 전달하고 있었다.

최 관장은 인성교육을 위해 월주제와 주별 소주제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1월의 월주제가 존경이라면 주별 소주제는 노력, 경로, 명예, 신뢰로 구성하여 명상의 시간이 끝난 후에 인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성교육은 이야기를 하거나 동영상을 통한 교육으로 운영해 나갔다.

2.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의미

1) 신체활동의 가치 발견

태권도는 수련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조화로운 육체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체활동을 통해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통해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태권도에 지속적인 참여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었다(김재은, 윤필규, 2014). 특히, 수련생들은 자신의 기분을 마음껏 발휘하고, 타인과의 겨루기 및 도장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디스트레스(Di-stress)를 유스트레스(Eu-stress)로 바꾸어 나갔다.

수련생들이 도장에 오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품새 이외에도 흥미 있는 뉴스포츠 활동도 하고, 음악줄넘기도 배워서 대회가 나가서 상도 타옵니다. 수련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음껏 신체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최 관장과의 인터뷰/2016/10/23).

2) 개인적·사회적 인성의 함양

태권도를 통해 수련생들은 절제나 끈기와 같은 개인적 인성을 함양하기도 하였고, 타인배려, 사회적 책임감 등의 사회적 인성 함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수련생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열정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련생들은 끈기와 책임감을 키워나갈 수 있다.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겠지요. 저는 사실 24년간 태권도장만 운영하다 보니 타 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는지에 대해 돌아볼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연구하고 보강하면서 그중 가장 효과가 괜찮다고 자체 증면 된 방법들을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장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끈기와 절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김관장과의 인터뷰 2016/10/24).

3) 적극적인 삶의 태도

수련생들은 태권도 품새, 미트 발차기, 겨루기 지도, 학교체육, 태권 체조, 호신술,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수업내용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가 제공하는 칭찬과 스티커가 수련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태권도 수련활동에 참여하면서 성격이 바뀐 학생들도 많았다. 소극적인 학생이 적극적인 학생이 되기도 하였고, 내성적인 학생이 외향적인 학생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품새를 열심히 참여한 수련생에게 “최선을 다해서 멋있다”라고 칭찬을 해주다 보니 성격도 활발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채관장과의 인터뷰/2016/10/30).

3. 태권도 수련의 구조 속에 인성교육이 스며들었는가?

태권도 수련의 구조 속에서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태권도 수련의 구조 속에서 활용되는 교수전략과 모형은 무엇인가? 또는 나만의 교육적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 인성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절차의 한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도입단계, 전개단계, 정리단계 중 하나의 단계에서 수련생들의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하거나 해당 도장의 특성에 맞게 도입단계에서 인성의 요소를 정하여 이야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도입단계에서 출결확인, 복장검사, 명상의 시간 후에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인성의 주제가 끈기라면 수업 시간 중에 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리운동

이 끝난 후에 본 운동 내용과 인성교육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최 관장과의 인터뷰 2016/10/23).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인성 요소의 내용들이 수련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계성을 갖고 운영되기 보다는 단계 중 하나의 내용 요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성교육을 가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측면은 의미 있으나 규칙을 잘 지켰을 경우에 부모의 사인을 받아오면 품 띠를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1품 승품심사를 다녀온 친구들을 상대로 2주간 인성교육 확인 자료를 배부하고 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지키고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면 1품 띠를 지급하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성 관장과의 인터뷰/2016/10/31).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인성교육을 수련의 과정에서 제공하는 지도자의 인성교육 지도보다는 결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확인적 차원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은 지도자의 교육을 통한 성취의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과정과 결과 속에서 인성교육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수련생들의 결과적인 모습만을 보고 칭찬해주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인성교육으로 보기 어렵다. 지도자가 수련의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그러한 결과가 수련생에게 나타났을 때 칭찬과 긍정적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을 태권도에 녹여서 같이 교육합니다. 품새를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는 ○○야, 멋있다. 그리고 경청, 배려, 봉사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스티커와 칭찬을 통한 교육을 합니다(채 관장과의 인터뷰/2016/10/30).

태권도 수련의 구조 속에 스며든 인성교육은 우리에게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한마디로 인성교육이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추후 태권도 수련의 구조 속에 인성이 스며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인성교육의 내용이 태권도 수련의 내용과 별개로 운영된다면 그것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태권도 수련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따라서 인성교육의 내용들이 태권도 기본동작이나 그날의 진도의 과정에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 관장의 인터뷰 내용은 인성교육이 바르게 진행되는 모습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한다. 그의 교육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태권도 수련의 내용과 별개로 운영되는 인성교육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와 관련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의를 주제로 할 때 손에 강아지 인형을 끼고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목소리로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후 세균 맨 손 인형을 끼고 불량스러운 자세로 뼈뼉하게 인사를 하죠.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바르게 인사하도록 지도합니다(김 관장과의 인터뷰/2016/10/24).

4. 태권도와 인성교육이 관련성을 맺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태권도 지도자들은 태권도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함양해나갈 수 있는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태권도 수련 속에서 인성이 가미될 수 있는 지도전략과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와 인성 관련 서적들이 부족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출하였다. 무엇보다 태권도 인성교육 관련 운영 자료의 부족을 아쉬워하였다. 태권도 관련 각 협회와 기관에 따른 태권도 기초 이론 자료가 연구되어 발간되고는 있으나 한정된 영역에 대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어 일선 태권도장까지 보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태권도 기초이론 자료의 대부분이 일반 체육영역과 스포츠 영역의 이론에 명칭만 바꾸어 발간된 것이어서 태권도 기초이론으로서 현실에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지적이다.

시중에 나온 태권도 책들을 보면 체육서적에다 태권도라는 이름만 바꿔서 냈지 인성과 관련하여 사용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특히, 인성 관련 자료가 학습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태권도 도장에서 활용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 인성과 관련된 요소를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설명된 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태권도는 사용할만한 인성자료가 거의 없습니다(김 관장과의 인터뷰/2016/10/24).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의 개념, 이론 및 실기교육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권도 인성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수련생의 특성인 인지적인 측면과 신체기능을 고려한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지침이 모호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태권도 수업에서 맨 먼저 출결 확인하고 인성교육이나 이론교육을 먼저하고 준비운동을 시키고, 본 운동에 들어갑니다. 본 운동 할 때는 실기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지, 발차기 하다가 세워놓고 이론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협회에서 태권도 실기수련을 하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최 관장과의 인터뷰/2016/10/23).

IV.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을 말하다

본 발표자는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이 반드시 일관된 틀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태권도 지도자의 전문성 측면에서 수련 지도방법을 강구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본 발표의 연구참여자들은 해당 도장에서 열심히 태권도를 지도하는 관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문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태권도 관련 소속 구성원들이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인성중심의 태권도 수련의 가능성 여부,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수업 운영하기', '이해와 체험의 통섭 구조', '협동학습의 구조 활용' 측면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수련생들의 인성 함양에 목적으로 두고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임을 밝힌다.

1. 인성중심의 태권도 수련은 가능한가?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동학습의 구조를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협동학습의 구조들은 의도와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태권도 지도자들이 수련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수련생들은 태권도 지도자들이 의도한 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수련생들을 지도하는데 다양한 교수 전략을 알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김 교사의 이야기/2016/10/11).

김 교사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성교육을 위해 태권도 수련은 품새와

겨루기의 기능 습득도 중요하지만 협동학습의 구조 활용(학생팀성취배분, 팀게임토너먼트, 직소수업), 다양한 영상 자료를 활용한 교육, 토론 학습 등의 교수전략을 통해 지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태권도 지도자들이 수련의 의도와 목적이 뚜렷하다면 인성이 포함된 태권도 교육을 구현하는 일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 지도자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질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의 가치를 통한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수업에서 직접적인 체험활동과 더불어 읽기, 쓰기, 토론하기, 감상하기 등의 간접적인 체험활동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스포츠를 통한 전인의 발달은 신체활동이라는 직접적인 체험과 더불어 다양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은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태권도 교육도 일정한 흐름의 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 수련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지도자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부족합니다. 체육과 마찬가지로 태권도의 지도법도 기존 지도자들의 지도방식을 따라다보니 인성교육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체육도 교육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 잘 될 수 있듯이 태권도 교육에서도 좋은 수련 지도의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조 교사의 이야기/2016.10.12).

수련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수련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대부분 활동별로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수련 지도의 방향이 좀더 명확해져야 할 듯합니다. 이번 기회에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태권도 수련의 틀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엄 교사의 이야기/2016.10.11).

인성중심의 태권도 수련의 구조는 기존의 구조나 틀에 인성교육을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수련의 자연스런 운영구조 속에서 인성의 요소가 내재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덕목을 설정해 놓고, 모든 수련생들이 그 덕목을 활용한 수련을 통해 인성을 함양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제고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에서 인위적인 덕목의 출현으로 수련생들을 변화시키려는 취지는 수련생들을 학습대상자로 보고 지식을 제공하려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성중심 태권도 교육은 태권도에서 추구하는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가 신체활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가운데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태권도 수련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권도 수련의 구조를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수련생들에게

인성중심의 태권도 수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큰 틀이 변화할 때 가능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한다(고문수, 2014).

오래전부터 체육과에서는 인성을 지향하는 학습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운동기능과 건강 체력 향상 등 실기기능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인성 교육을 부르짖으면서 실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인성 교육이 배제된 수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공포와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닫힌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인성은 발현되기 힘들어 보인다. 교사들도 인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인성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만을 지도하다보니 실제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인성의 요소에 대한 탐색 없이 인성의 거시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성의 요소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동안 인성교육이 개념교육으로 많이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활동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인성이 내용만 안다고 실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업 속에서 인성의 요소들이 실천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수업에서 인성교육이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교육 방법대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김 교사의 이야기/2016.10.14).

인성교육이 개념 교육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나 학생들끼리의 갈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인성에 관심을 기울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수업 속에서 인성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업에서 학습내용을 정리할 때 수업 속에서 실천한 인성 관련 발문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문이 거의 없어요(엄 교사의 이야기/2016.10.15).

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인성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나 활동 속에서 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성 함양 관련 발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권도 교육 또는 수련에서도 수련의 목표에 인성의 내용을 삽입해야 하고, 수련의 과정에서 이를 실천한 후 수련의 정리단계에서 수련 목표로 내세운 인성의 요소가 수련의 실천 속에서 잘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습관화해나가는 가운데 인성의 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벽(2010)교수는 “인성은 실력이다”라고 했다. 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방법을 동원하여 수련생들의 인성을

고양해나가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수련생들이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수련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련생들이 기능 중심의 수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줄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수련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다른 친구들의 도움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추구하고자 하는 수련의 가치들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도자의 관심과 고민의 폭이 깊어져야만 한다. 수련생들의 인성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지도자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몫임을 기억해야 한다.

2.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

1)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수업 운영하기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은 지도자의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 지도자가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태권도 수련을 하느냐에 따라 수련생들의 태도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태권도 지도자들은 인성교육이 어떠한 수련 전개 구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태권도 수련의 내용 속에서 인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태권도 수련의 구조의 등장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성교육의 방법이 도입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본 운동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 교육에서 분명한 교육 철학이 수반이 된다면 수련생들에게 의미 있는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은 구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도입단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긍정의 단어를 설명해주고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전개단계에서 그날의 인성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내포시켜 표출하며 태권도 교육을 수행하고 정리단계에서 효도 쿠폰 또는 미션카드를 나눠주고 확인함으로써 관장님, 부모님과의 약속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최 관장과의 인터뷰/2016/10/23)

2) '이해, 체험, 소통'의 통섭 구조 활용

그동안 태권도 수련의 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았다. 어떤 구조를 갖든지 수련활동에 적절한 순서를 활용하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수련의 방향에 따른 수련의 흐름을 안내하는 구조보다는 활동중심의 내용의 구성과 운영에 관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들도 인성중심 수련 강화를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지도자들에게 목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 체험, 소통'의 수련 전개 구조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태권도 수련의 '이해'의 단계에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강화하고, 심동적 측면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체험'의 단계에서는 강화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내용이 수련생들의 활동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통'의 단계에서는 '이해'의 단계에서 제공된 내용들이 '체험'의 단계에서 바르게 도출되었는지를 '소통'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통'의 단계에서 '이해'와 '체험'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탐색되어 실천되었다면 해당 태권도 수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영역의 측면도 '이해, 체험, 소통'의 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실천이 되었다면 그 수련 또한 의미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도자가 수련생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인성의 요소나 정의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해당 단계(이해, 체험, 소통)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간다면 인성 중심 태권도 수련의 구조로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차시의 운영은 도장의 환경과 지도자의 재량 및 수련생들의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즉 '이해, 체험, 소통'의 구조에 필요한 최소의 시간을 차시별로 명시하여 원하는 수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이대형 외 3인, 2015).

태권도 수련에서 끈기, 타인배려, 협동심 등의 인성의 요소가 태권도 수련의 과정 속에서 들어날 수 있도록 '이해, 체험, 소통'의 통섭 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태권도 수련의 이해 단계에서 제시한 끈기가 체험 활동 속에서 끈기 있는 도전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가운데 소통의 과정에서는 이해와 체험의 과정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끈기가 바르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끈기의 인성의 요소를 수련생들에게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 체험, 소통'의 구조가 순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차시 주제와 상황에 따라 순서는 바뀔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해, 체험, 소통의 구조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제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운영의 틀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먼저 일수도 있고, 체험과 소통이 먼저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소통 후에 체험이 될 수도 있고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활동 속에 인성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채 관장과의 인터뷰/2016/10/30).

3) 협동학습의 구조 활용

태권도 수련의 과정에서 인성교육은 의도성과 계획성을 갖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학생팀성취배분(STAD)과 팀게임토너먼트(TGT) 그리고 직소(Jigsaw I.Ⅱ)는 의도적으로 수련생들이 서로를 돕는 가운데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협동하면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모든 수련생들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통해 다른 수련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매 차시마다 이 구조를 활용하여 수련생들을 지도할 필요는 없지만 지도자들이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데 협동학습의 구조를 활용한다면 팀원들 간의 협력을 강조할 수 있고, 태권도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빠짐없이 팀의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품새를 지도하는 데 직소(Jigsaw I)구조를 활용하면 서로 다른 모듬의 모듬 구성원들끼리 1대 1로 동작을 지도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동작으로 배우는 수련생은 동작을 가르쳐주는 수련생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은 사범이나 관장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품새를 수련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조 교사의 이야기/2016.10.29).

겨루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팀게임토너먼트(TGT)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겨루기의 기본 동작을 배워서 팀별로 1등은 1등끼리, 2등은 2등끼리... 비교하여 더 높은 점수를 얻은 모듬원이 이기는 구조를 활용한다면 모듬 협동을, 모듬 간 경쟁을 통해 모듬원들이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흥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엄 교사의 이야기/2016.10.30).

V. 태권도 지도자의 전문성을 말하다

존경받는 스승의 말은 제자에게 사명이요, 꿈과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채 관장의 이야기/2016/10/30).

지도자와 수련생의 관계를 단순히 태권도 기술의 교육자 또는 피교육자가 아닌 스승과 제자의 형태로 인지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학원이 아닌 태권도장으로써 도덕적인 측면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면 예의 바르고 질서 잡힌 교육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최 관장의 이야기/2016/10/23).

위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수련생들이 서로 상호간의 신뢰를 전제로 수련내용을 지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성교육이 가미된 태권도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질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발표의 결론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실천을 위한 지도자의 노력을 토대로 전개하고자 한다.

태권도 수련의 질은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도자들이 메이커(MAKER)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져야 한다(이지현 역, 2011). 여기서 M(Method)은 방법, A(Awareness)는 수련생 이해, K(Knowledge)는 태권도 지식, E(Ends)는 가르침의 목적과 이상, R(Relationships)은 지도자와 수련생의 신뢰 관계를 가리킨다. 가르침의 이 5가지 요소는 'MAKER'라는 공통된 틀을 구성한다. 5가지 요소의 영문 첫 글자를 합치면 'MAKER'가 된다.

첫째는 방법(M)이다. 수련생들이 성취해야할 지식, 이해, 기능을 획득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기능과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될 것은 많다. 태권도 수련을 어떻게 계획하는가? 수련 과제를 어떻게 수련생들에게 부과하는가? 수련생들의 학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수련평가 결과를 수련생이나 학부모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 등이다. 여기서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띈다. 즉 여기서 '방법'은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수련생 이해(A)이다. 이것은 태권도 지도자가 자기 수련생들에 관해서 무엇을 아는가와 관련이 있다. 수련생의 흥미, 재미 그리고 관심을 의미한다.

셋째는 지식(K)이다. 지도자가 가르치는 태권도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사범이나 관장이 태권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중요한 개념, 이론,

사실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태권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탐구 방법에 얼마나 숙달하고 있는가? 품새와 겨루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태권도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은 채 수련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이 해당된다.

넷째는 목적(E)이다. 이는 태권도 지도자가 가르치는 목적이나 자기 수련생들을 위해 갖는 목적이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는 우리가 도장에 다니는 수련생(아동 또는 청소년)을 위해서 추구하는 고상한 이상을 의미한다.

다섯째는 관계(R)이다. 이는 태권도 지도자가 수련생들과 맺는 신뢰 관계를 가리킨다. 지도자가 수련생들의 신뢰를 얻어서 수련생들이 고민하고 있거나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인가? 아니면 수련생들이 건전한 비판적 사고, 도덕적 사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측면이 해당된다.

태권도에서 수련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힘만으로는 제한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많은 도장에서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수업 운영하기', '이해, 체험, 소통의 통섭 구조 활용', '협동학습의 구조 활용' 등의 방안들을 차근차근 활용해 나가야 한다. 태권도 관련 연수나 태권도 교육 자료의 보급 등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태권도 수련 전개 구조의 방향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해 태권도 지도자들의 관심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 고문수(2014). 태권도 교육과정의 비판적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교육논총**, 34(2), 53-69.
- 고문수, 손천택(2004).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체험과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43(3), 337-347.
- 고문수, 이지훈(2013). 창조적인 태권도인 양성을 위한 태권도 교육과정의 개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2), 119-132.
- 김석련(2012a). **태권도 교육과정**. 서울: 서정문학.
- 김석련(2012b). **멈춤의 몸짓(태권도 교육철학)**. 서울: 서정문학.
- 김용범(2009). **무도관련 학과의 교육과목에 관한 연구: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무도학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김재은, 윤필규(2014).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스포츠 참여의미와 적응과정 탐색. **한국**

- 체육철학회지, 22(1), 2-19.**
- 손제열, 손천택(2006). 태권도수련 지소요인과 수련생 학부모의 인식변화.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6**, 61-70.
- 손천택, 박상봉(2010).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교육과정의 개선 및 운영. **국기원 태권도연구, 1(1)**, 31-44.
- 손천택, 정국현, 전익기, 김중헌, 임태희, 강명희, 고문수, 박정호(2012). **WTA 전문교육과정**. 서울: 국기원.
- 이동호, 조순묵(2004).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3(4)**, 301-311.
- 이대형, 고문수, 전세명, 엄혁주(2015).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를 위한 초등 체육 교수학습 자료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이지훈, 남덕현, 이주욱(2007). 태권도 도장 사범의 교육과정 인식과 지도전략. **코칭능력개발지, 9**, 137-146.
- 임관인(2006). 태권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방향성 탐색.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4(1)**, 227-244.
- 조벽(2010). **조벽 교수의 인재혁명**. 서울: 해냄출판사.
- 천성용, 최영욱, 박동수(2013). 태권도 수련이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1)**, 201-211.
- 최명수, 김장환, 엄대영, 박찬후(2006). 태권도학과의 교육과정 인식 및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8**, 99-109.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enhart & Winston. 박종흡 역(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실천적 인생교육

효과적인 태권도 인생교육의 실천방안

이종훈 [경희대 효(孝)태권도 관장]



효과적인 태권도 인성교육의 실천방안

이종훈 (경희대효태권도 총 관장)

I. 서 론

“ 이 씹던 껌은 얼마일까요? ”

네 무려 6억 6,000만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던 껌 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태권도 인성교육의 가치를 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이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잊고 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잊고 있던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II. 본 론

탁구의 종주국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영국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탁구 하면 떠오르는 나라를 중국이라고도 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증거가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며,
신용이 없으면 존경이 없다.

라는 이야기처럼 태권도인성교육 또한 본질에 충실하되, 다양한 분야의 장점들을 배우고 흡수해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자 또한 '인성교육은 무엇인가?' 에 대한 길을 찾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길을 모를 땐 길을 걸어가 본 사람에게 길을 물어 보아라.

라는 이야기처럼 길을 걸어본 사람을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경남 하동 청학동에 계신 명륜학당 이정석 훈장님입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귀한 자식 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 라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듣기 위해 사범님 전원과 수련생들과 함께 찾아가 배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에서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박사님을 만날 때 마다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소통하는 부모에 역할을 보고 들으며, 과연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친구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나의 권위적인 인성 교육관에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다시 인성교육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도장 아이들은 로봇태권v입니다. 볼 때 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 갈수 있을까? 그래서 인성교육을 공부해야겠구나!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만들어 낸 것이 세븐 파워 태권도 인성교육 시스템 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실한 인성교육의 방향과 중심을 잡았고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느끼는 인성교육의 모든 고민들을 이 시간 속 시원 하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민 스님은 인간관계를 난로처럼 대하라.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차가워진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백주부님은 간단히 계란을 삶을 때도 불 조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감동 란' 드셔 보셨나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삶을 계란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맛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덜 익

지도 펍펍하지도 않게 계란을 삶았을까? 라는 감동을 줍니다. 태권도인성교육 또한 이러한 균형 잡힌 처방으로 감동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은 될 수 있다.

세븐파워 태권도 인성교육 시스템 커리큘럼입니다. 세븐파워 태권도 인성교육 시스템은 총 7가지 파워를 아이들에게 길러주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세븐파워 태권도 인성교육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twork POWER

Ỳ 문제 : 비교의식, 질투, 시기, 편 가르기, 불신, 자기중심적

Ỳ 처방 : 문제인식상담

Ỳ 효과 : 배려, 초점 바꾸기, 공감능력, 공동체의식 향상

Ỳ 자료 : 우리아이들의 고민들의 상당부분이 대인관계에 있음

Ỳ 적용 : 성격 유형 검사 방법을 통해 입관 시 수련생의 성격을 파악

2. Mental POWER

Ỳ 문제 : 낮은 자존감, 불안, 초조, 부정적, 염려, 두려움, 강박관념, 불평, 회피

Ỳ 처방 : 문제제기상담, 감사훈련, 적절한 책 선정, 감상문, 미션수행, 극기 훈련

Ỳ 효과 : 건강한 자존감, 긍정력, 성취감, 회복 탄력성, 도전정신, 돌파력

Ỳ 자료 : 감사교육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Ỳ 적용 : 도전을 통한 성취감을 맛보게 하라!

3. Brain POWER

- 문제 : 코르티졸 중독증, 수면부족, 뇌혈류 부족, 뇌 영양부족, 저질체력
- 처방 : 문제제기상담, 전자기기 자제, 기초체력훈련, 규칙적인 생활, 명상, 건전음악
- 효과 : 학업동기, 세로토닌, 건강한 뇌세포, 집중력, 창의력, 토론과 티칭, 성적향상
- 자료 : 알코올 중독자의 게임중독자의 뇌 MRI 촬영 영상
- 적용 : 좋은 음악과 독서의 중요성

4. Body POWER

- 문제 : 정크 푸드, 나쁜 자세, 수면부족, 운동부족, 저질체력
- 처방 : 문제제기상담, 음식과 자세교육
- 효과 : 브레인 푸드, 식사습관, 운동습관, 체력→뇌력
- 자료 : 체력이 뇌력이다.
- 적용 : 발표자의 성공사례

5. Leadership POWER

- 문제 : 1등병, 교만, 독선, 개인주의, 게으름, 태만, 충동적, 방관적
- 처방 : 문제제기상담, 21일 습관교육, 학사상담, 섬김 훈련, 스피치훈련
- 효과 : 자기관리, 술선수범, 팔로워십, 서번트리더십

Y 자료 : 셀프 리더십을 길러라!

Y 적용 : 리더십은 이끄는 힘이라는 개념

6. Moral POWER

Y 문제 : 부정행위, 거짓말, 욕설, 폭력, 이기심, 개인주의

Y 처방 : 문제제기상담, 침묵훈련, 나눔/봉사활동, 아웃리치, 부모사랑교육, 감상문

Y 효과 : 정직, 자기효능감, 효도, 자선활동, 애국

Y 자료 : 정직한 아이가 집중력이 높다!

Y 적용 : 평범한 행사나 프로그램 중에 항상 효를 담아 교육한다.

7. Spiritual POWER

Y 문제 : 삶의 남용, 삶의 동기부재, 물질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Y 처방 : 사명선언문, 종교 활동 권장, 유연장쓰기, 노인환자돌보기, 서적 및 감상문

Y 효과 : 가치인생, 충실한 삶, 선한 영향력, 사명감

Ⅲ. 결 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독수리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찾지 못해 본인이 닭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독수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독수리다운 삶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시키는 가치 있는 일에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가장 행복한 삶이 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스스로가 독수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술선수범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A piece of calligraphy in black ink on a light background. The characters '실행이' (Sil-hung-i) are written in a large, expressive, cursive style. Below them, the characters '답이다' (dap-i-da) are written in a smaller, more compact style. A small red square seal is visible at the bottom right of the calligraphy.

- memo -

- memo -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추계 학술세미나

태권도 인성교육의 현재와 미래



KUKKIWON
WORLD TAEKWONDO HEADQUARTERS

32, Teheran-ro 7 gil, Gangnam-gu, Seoul, Korea 135-908

Taekwondo Research Institute, Kukkiwon

Tel : 82-2-553-5651 Fax : 82-2-3469-0189

E-mail : research@kukkiwon.or.kr

Homepage : <http://www.kukkiwon.or.kr> <http://research.kukkiwon.or.kr>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추계 학술세미나

태권도 인성교육의 현재와 미래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aekwondo